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 내일 '팡파르'

28일까지 고인돌 유적지 일대 야생화·다육식물 전시관 운영 DM 버스킹 등 다채로운 행사

'202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가 19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곡 효산리-춘양 대신리에 걸친 596기의 고인돌 유적군 일대에서 펼쳐지며, 먹거리 부스와 피크닉 공간을 조성하였고, 다채로운 전시·공연 행사가 펼쳐진다.

봄꽃과 야생화, 다육식물로 꾸며진 '봄의 향기' 전시관은 너비 8m, 길이 40m 규모의 하우스 3동으로 구성된다.

첫째 동은 초화류를 사용해 꽃길, 개미산 등 화순의 명소를 다채롭게 표현했고 둘째 동은 소박한 야생화 전시존으로 꾸며졌다.

셋째 동은 다육식물 주제관으로 '2024 다육가드닝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축제 기간 물멍 존에서는 'DM 버스킹'이 펼쳐진다. 20일에는 가수 최백호와 양희은이 출연해 7080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21일 박혜원, 27일에는 이재성과 권인하 등이



'202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가 19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막을 올린다.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 유채꽃밭. <화순군 제공>

출연해 관광객들을 만난다.

향토 음식과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들어설 고인돌 장터에는 '추억의 DJ박스'가 운영된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봄소풍 가기 좋은 4월,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장을 찾아 여유를 즐기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노랗게 물든 유채꽃과 푸른 하늘을 벗 삼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유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무안군 농특산물 쇼핑몰

'맛플무안몰' 22일 오픈

지역 60여 농가·업체 참여 확정

무안군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을 오는 22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맛플무안몰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연결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한 무안군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이다.

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현재 지역의 60여 농가·업체가 참여해 160여개 판매상품을 구축했으며, 연중 수시로 입점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점자적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을 재배·생산·가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이다. 입점가능 품목은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등이다.

군은 전남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몰 운영체계와 마케팅 계획, 상품관리, 배송관리, 고객 응대 요령 등 본격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현재 농특산물 유통과 소비트렌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만큼 맛플무안몰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소방 5월25일까지 '119 안전체험장' 운영

매주 토요일 솔비치 리조트

진도소방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최근 119 안전체험장<사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19안전체험장은 봄철 화재 예방 안전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심폐소생술·하임리히법 교육, 소화기 사용법·소방안전교육, 봄철 화재예방안전 시책 홍보, 주택용 소

방시설 설치 홍보 등을 체험했다.

지난 13일 시작한 119안전체험장은 오는 5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박천조 진도소방서장은 "119안전체험장 운영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봄철 화재 예방과 응급 처치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며 "진도소방서에서도 항상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기자 노트

작은 섬 수장의 집념과 창의력



이상선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농업과 수산업이 생계수단으로 희망 없던 정제된 군(郡)이 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집념과 창의력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신화를 쓰고 있는 주인공은 박우량 신안군수다.

박 군수는 민선 4-5기 신안군의 약진을 위한 설계를 시작했지만, 6기에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군수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하지만 향후들과 현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설득으로 민선 7기 다시 신안의 수장이 되어 또다 한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해 창의력을 발휘했고, 신안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들의 불협화음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성공을 확신하고 추진해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으로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의 1섬 1테마 정원조성과 신재생개발사업으로 세계 속의 신안을 알리고 관광객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 인구소멸위기 극복, 기후위기 대응 등 1석 4조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의 근간에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여러 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경관을 훼손

손하지 않고 개발한다는 절대적 원칙과 어느 특정 세대보다는 남녀노소 모든 세대와 동호인들이 함께하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전시, 체험 등 가성비 높은 종합 관광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박 군수는 행보는 이제 세계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섬 전문학술회의의 50개국에서 20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제20회 세계섬학술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박 군수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심각한 기후위기가 국제적으로 대응할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신안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고 접목해 선제적으로 국제시장을 겨냥한 성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공에 지인들과 정치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중앙정부 진출을 요청받았다고 알려졌지만, 그는 "오로지 신안을 살기 좋은 일등 고장으로 일구어나간다는 생각뿐이다.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 등 진정한 수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의 집념과 굳은 의지, 빛나는 창의력은 희망이 없던 어두운 곳에서 밝은 미래의 신안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신안 수장의 꿈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만 봐도 가능성을 충분히 엿 볼 수 있다.

/sslee@kwangju.co.kr

신안군 50여개국 참여 '세계섬학술회의' 유치

2026년 신안서 1주일간 열려

신안군이 '제20회 세계섬학술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세계섬학술회의는 세계 섬 연구기구연합인 ISISA(International Small Islands Studies Association)가 2년마다 해외 주요 섬 지역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섬 전문학술회의다.

전 세계 50여 개국의 20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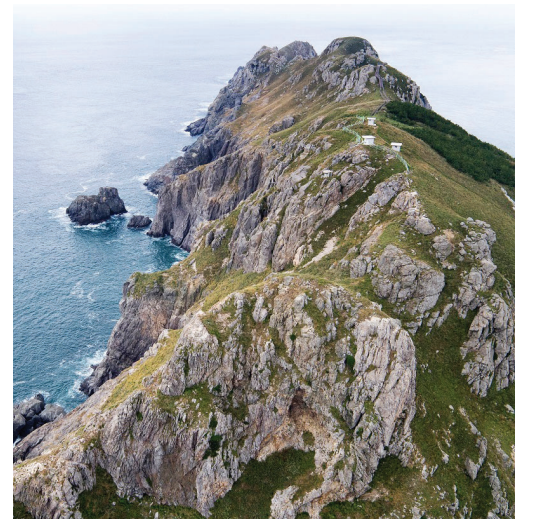
신안군은 전남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유치 제안서를 섬 연구기구연합(ISISA) 본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유치가 나섰다.

그 결과 일본, 카리브 등 4개 국가와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신안군이 섬 학술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오는 2026년 열리는 20회 세계섬학술회의는 '기후 위기, 섬의 회복력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일주일간 신안군 자은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회 세계섬학술회의는 1986년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시작했다.

신안군과 전남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한국대표단은 오는 6월25~29일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개최하는 제19회 대회에 참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전경.

석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신안군 대표단은 본격적인 2026 세계섬학술회의 홍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6 세계섬학술회의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인 생물다양성이 높은 신안군이 세계 섬 발전을 견인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섬을 세계에 알리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유치 소감을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전남대학교병원이 '뉴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합니다

New Smart Hospital

전남대학교병원은 융복합 디지털 의료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의 의료거점으로 성장할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사업기간 2024~2037년) 2030년 동관 준공 및 개원 예정 / 2037년 서관 준공 및 개원 예정

